

데살로니가전서 개요

1. 저자와 쓰여진 시기: 사도 바울이 A.D. 49-5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 편지의 배경: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던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시기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는 다시 베뢰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1-9). 베뢰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그곳까지 와서 소동을 벌이고 바울은 아테네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를 유대인들의 박해로 갑자기 떠나게 된 바울은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를 대신 그곳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1-3).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며 바울과 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이 열리지 않기에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3.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인구가 그 당시 10만명 정도 되는 풍요로운 항구 도시이고 군사적, 상업적으로 중요한 에그나티아 도로 (Egnatian Way)위에 위치하였습니다.

4. 편지의 특징: 막 신앙을 갖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갑자기 떠나온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격려의 표현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역과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갈 수는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생활에 대한 지침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적습니다.

5. 데살로니가에서 한 바울의 사역과 열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함 (1:5)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됨 (1:9-10)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 (2:9)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함 (2:12)

*사도행전 17:3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하고 말하였다.

6. 구성:

1) 인사 (1:1)

2)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감사 (1: 2-10)

3) 데살로니가에서 한 바울의 사역 (2:1-16)

4) 데살로니가에서 온 기쁜 소식과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2:17-3:13)

5)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생활 (4:1-12)

6)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 (4:13-5:11)

7)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지침 (5:12-22)

8) 기도와 맺는 말 (5:23-28)

5: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